

## 〈빌립보서 강해〉

### 빌립보 교회로 인한 감사와 교회를 위한 기도

본문: 빌 1:3-11

2024년 1월 10일

## 1. 개요

1:1-2

도입 및 인사

1:3-11

빌립보 교회로 인한 감사와 교회를 위한 기도

- 인사말-감사-기도로 이루어지는 바울 서신의 전형적인 도입부.
- 고전 수사학적 구조와 기교를 활용한 것일 수 있음. 그러나 바울의 편지는 청중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있다는 큰 차이가 있음.

## 2. 본문 주해

### • 교회로 인한 감사(3~8절)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 3~5절이 한 문장.
- 3~4절에서 ‘모든’(파스) 이 네 번 사용.  
“여러분에 대한 나의 모든 기억 가운데, 여러분 모두를 위한 기쁨으로 드리는 나의 모든 간구의 모든 순간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 기도의 자유, 기도의 온전성. → ‘모든’ 것을 기도로 아낄 수 있다!
- 기도로 인한 감사. → “기도로 함께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
- ‘생각’(므네이아) = ‘기억’.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 ‘간구’(데에시스) = ‘결여, 부족’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을 채워 달라는 요청.
-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함.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 =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후원.
- ‘참여’(코이노니아) = ‘친교, 교제’ → 1) 물질적인 나눔 2) 함께함 3) 참여

## ※ 코이노니아

- 바울은 성찬을 행할 때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
- 요한 서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로 나타냄.
- 코이노니아는 그리스 문화 전통에 있는 동방교회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중요한 개념.
- 인격적 관계와 결합. 구체적인 삶의 나눔으로서의 참여.
- 바울을 위한 빌립보 교회의 헌금은, 그들의 삶을 바울과 함께 나누고 있다는 말이며, 이 나눔은 그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지인 것.
-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 “착한 일” → 새 창조 신학. =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전체가 인간의 타락을 기점으로 함께 고통받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으로 이 전체를 회복시키신다는 것.
- 개인 → 코이노니아 → 새 창조  
착한 일은 복음에 참여함, 코이노니아를 통해 이루어진다!
-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의 삶에 의미를 형성하는 기준점은 언제나 오늘의 어떤 날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 7절과 8절에서 흐르는 법정적 분위기. 바울 당시 사람들은 법정 단어에 익숙했음. 법정 진술은 당시 수사학의 3대 장르 중 하나. 바울은 가상 법정을 독자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것.
- “마땅하니”(디카이오스) = ‘의’ 칭의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
- “변명함”, “확정함”, “증인”(8절) 모두가 법정 단어.
-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붙들므로 법정에 선 피고인.
- “참여한 자”(신큰코이노노스) = “함께 참여한 자” →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선물을 보냄으로 바울 편에 선 것.
- 세상 법정 vs. 하나님의 법정 → “우리가 당당해야 할 곳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법정이다!”
- “나와 함께 복음의 편에 선 것처럼, 삶에서도 복음의 편에 서서 나아가라!”

**8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스플랑크논) = 대장 혹은 인간의 내장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  
= 예수님께서 “공홀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에 동일한 어근의 동사형(스플랑크니조마이)이 사용됨.
-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누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공홀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 “하나님이 내 증인” →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참 증인이 되신다는 것.
-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판결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갖고 살아왔는지를 헤아리시는 것.
- 그리스도의 공홀로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에 참여함(코이노니아)을 누리는 것.

## • 교회를 위한 간구의 기도(9~11절)

## ※ 공동체를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의 일관성

빌 1:9-11	골 1:9-11
기도하노라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채우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 “사랑”(아가페) = 바울이 앞서 강조한 것(공홀, 사모함, 코이노니아).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
- “지식”(에피그노시스) =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식 혹은 통찰력.  
“총명”(아이스세시스) = 분별력, 판단력과 관련된 지혜. 10절의 “분별”과 연결되는 것.
- 옳게 분별하는 지혜.

**10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 “지극히 선한 것”(디아페론타) = 중요한 것. 문제가 되는 것. ↔ ‘아디아포라’ = 중요성이 없는 것.
- “분별하며”(도키마조) = 그리스 폴리스에서 공직에 나갈 인물을 검증하는 공적인 절차를 의미.

- 건강한 분별력. “공직자를 엄격하게 검증하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중요한 것을 분별하라!”
- “허물 없이”(아프로스코포스) = “실족하지 않게 하는”
  - 고전 10:23, 32에서 공동체 생활과 관련하여 사용됨.
  - 분별력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
- “우리의 분별력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쓰고 있는가?”

###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 “의의 열매” →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 바울의 강조점 →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맺힌다!”
- 6절의 확신, 무엇을 확신하는가? → 의의 열매가 맺힐 것!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곧 예배다!”

## ▣ 요약 및 적용

### • 복음에 참여함

- 복음에 참여함 = ‘코이노니아’ →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예배.  
성도 간의 교제.  
개인의 삶(의의 열매를 맺는 삶).

**적용: 진정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자!**

### •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분도 하나님입니다!
-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적용: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붙잡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자!**

### • 공동체를 세우는 분별력

-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총명을 가져야 한다.
-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다.
- 지식과 총명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적용: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과 총명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자!**